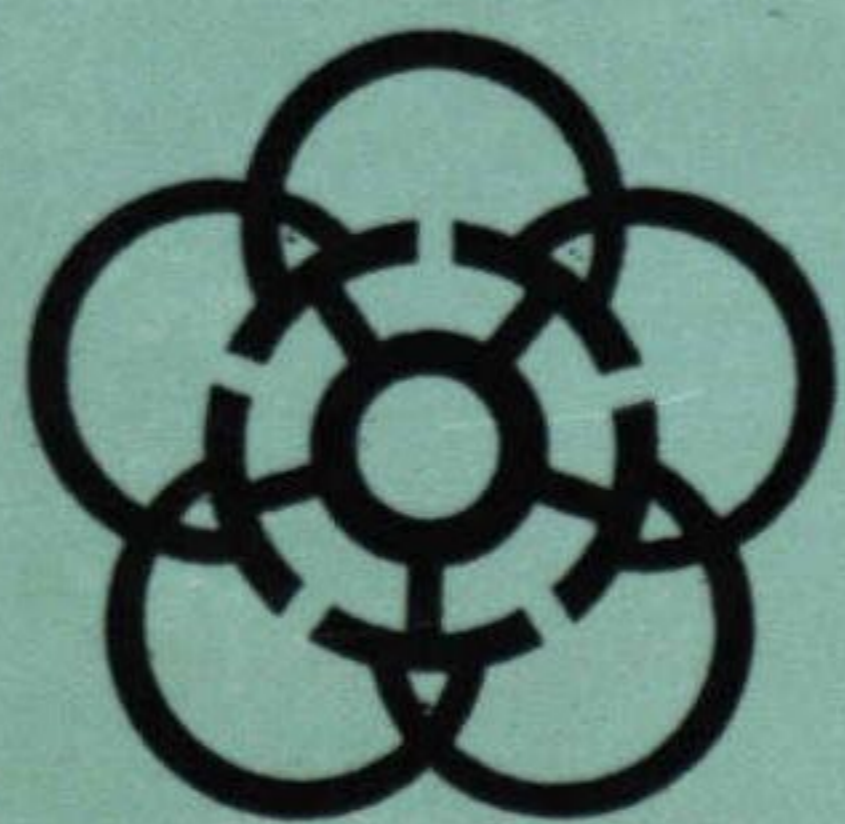


禮節과 儀禮



青陽文化院

153

예절과 의례

청양문화원

發刊辭



傳統禮節과 儀禮를 알자

靑陽文化院長 安鍾日

靑陽은 山의 精氣와 물의 德이 넘쳐 사람은 氣象이 당당하고 슬기로우며 땅은 香氣롭고 기름져 살기 좋은 고장으로 옛부터 이어져 오고 있음을 자랑삼고 있다. 이 福된 곳에 태어난 우리는 幸福된 가정을 꾸미고 이웃과 고장의 情緒를 보살피어 슬기를 모아 鄉土의 발전과 나라의 융성에 이바지 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傳統的인 儀禮와 禮節을 지켜 왔던 충실한 禮鄕의 고장 이였음을 알 수 있다.

朝鮮時代에 倫理觀에 의해 지켜왔던 儀禮와 禮節이 오늘날 변화되가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不死鳥와 같이 살아 남은 역사적인 전통적 의례를 문헌에 따르고 선인들의 슬기를 찾아 간결하게나마 발간하였습니다. 文化군민 모두가 향토문화의 뿌리를 찾기에 참고와 보탬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00. 9. .

목 차

| | |
|-------------------------|----|
| 제一章 효도하는 예절 | |
| 1. 효도하는 마음 | 5 |
| 2. 효도하는 길 | 6 |
| 제二장 생활예절 | |
| 1. 대화하는 예절 | 8 |
| 2. 전화하는 예절 | 9 |
| 3. 방문할때 예절 | 9 |
| 4. 식사하는 예절 | 9 |
| 5. 악수할 때 | 10 |
| 6. 작별할 때 | 10 |
| 7. 승차할 때 | 11 |
| 8. 보행할 때 | 11 |
| 9. 앉는 자세 | 12 |
| 10. 서있는 자세 | 12 |
| 11. 옷차림 | 13 |
| 12. 직장인의 예절 | 13 |
| 13. 집회시의 예절 | 14 |
| 14. 그외의 예절 | 14 |
| 제三장 전통예절 | |
| 1. 공수하는 예절 | 16 |
| 2. 절하는 예절 | 17 |
| 3. 한복의 바른 예절 | 20 |
| 제四장 계촌법 | |
| 1. 촌수계산법 | 23 |
| 2. 친척 계촌표 | 25 |
| 제五장 지방쓰는 법 | 26 |
| 제六장 수의서식 | 28 |
| 제七장 단어해설 | 30 |

제一章 孝道하는 禮節(효도하는 예절)

나를 낳아 기르시고 가르쳐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신 부모님의 숭고한 노고를 어히 잊으리요.
 효도하는 사람이 충성도 하며 효도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성실하니 효를 百行之本(백행지본)이라 하는 것이다.
 효도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편안하게 봉양하는 자손의 도리이다.

1. 孝道하는 마음

- 父母가 아니시면 이몸이 태어날가
 父母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父母의 은덕은 바다보다 넓으니
 지성을 다하여 孝道하는 마음을 가지자.
- 孝道는 一百가지 행실에 근본이 되는 것이니 효도를 하지 않는자는 아무리 출세를 한자라도 족히 설 땅이 없을 것이니라.
- 사람은 누구나 어버이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있으나

물욕과 처자에 밀려 사랑과 공경을 잃게 되는 것이다.

- 孝道를 너무 어렵게 생각지 마라. 자기에 맞는대로 行하면 효도니라.

ㄱ. 몸을 건강히 하여 부모에 걱정되지 않게함도 효도요.

ㄴ. 학업을 열심히 하여 부모를 기쁘게 함도 효도요.

ㄷ. 형제간에 우애하여 부모를 즐겁게 함도 효도요.

ㄹ. 직장에 충실하여 주위에 모범이 됨도 효도요.

ㅁ.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며 가문을 빛나게 함도 효도니라.

- 孔子 말씀에 孝子は

거처할때는 공경을 다하고

봉양할때는 정성을 다하고

병환에는 근심을 다하고

돌아가시면 슬픔을 다하고

제사를 올릴때는 엄숙함을 다할 것이다.

2. 孝道하는 길

- 孝道하는 기본은 順從(순종)이요, 恭敬(공경)이니 부모가 뜻하시는 바를 받들어 어기지 않을 것이다.

- 효도에는 養志(양지) 즉 뜻을 잘 받들음과 養體(양체) 즉 몸을 잘 봉양함의 두가지가 있으니 둘 다 갖추어야 참 효

도니라.

- 매사를 자기 마음대로 하지말고 부모와 상의드려 부모를 외롭지 않게 사소한 일이라도 꼭 말씀드려 기쁘게 하여 드린다.

제 2 장 生活 禮節(생활 예절)

일상생활을 하여 나가는데 서로의 도리와 규범이 생활예절이니 내가 남을 존경할 때 나의 인격도 존대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새생활 새질서가 바로 잡힐 수 있는 것이다.

1. 대화하는 예절

- 대(對)는 다른 사람 말을 잘 듣고 대답하는 것이요
- 화(話)는 자기가 하는 말이나 대화는 자기 말보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줄 알아야 한다.
- 대화할때는 딴 곳을 보지 말고 상대자의 가슴부분을 본다.
- 상대자의 말이 다 끝나기 전에 중간에 말하지 않는다.
- 자기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
- 말씨는 부드럽고 온화하게 하고 거친말이나 성내지 않는다.
- 윗어른께는 손짓 발짓을 삼가한다.
- 사람의 말이 신(信) (人+言=信자) 즉 믿음이라는 뜻이니

말과 행동이 일치하게 신용을 지킨다.

2. 전화하는 예절

- 너무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은 삼가한다.
- 전화기 옆에 필기용구와 메모지를 준비해 둔다.
- 전화를 걸 때 상대가 확인되면 자기를 소개한다.
- 받을 때에는 신호가 두번 울리면 왼손으로 수화기를 들고 먼저 “예”라고 대답한 다음 자기를 소개한다.
- 잘못 걸려온 전화라도 친절하게 응대한다.

3. 방문할 때 예절

- 미리 약속이나 전화를 한다.
- 이른 아침이나 늦은 시간, 식사 시간은 피한다.
- 방문시에는 그집 윗어른께 먼저 인사한다.
- 주인의 자리와 의자에는 앉지 않는다.
- 서재의 책이나 장부와 기물은 주인의 허락없이 보지 않는다.
- 초대 받지 아니한 사람을 임의로 동행하거나 분위기를 흐리게 할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는 안된다.

4. 식사하는 예절

- 어른보다 수저를 먼저 들지 않는다.
- 어른은 아랫목이나 상석에 모신다.
- 젓가락과 숟가락을 함께 쥐고 식사하지 않는다.
- 음식을 먹을 때 소리를 내지 않는다.
- 반찬을 뒤적이고 고르지 않는다.
- 식사중 너무 큰소리로 떠들지 않는다.
- 식사중에는 잘못된 일을 꾸지람하지 않는다.
- 식사의 속도는 옆사람과 보조를 맞추며 먼저 식사가 끝나면 밥그릇에 수저를 얹어놓았다 상대방이 끝나면 상에 내려놓는다.

5. 악수할 때

- 공손히 손을 잡는다.
- 어른이 먼저 청하면 하고 왼손은 아래에 바친다.
- 남녀간에는 여자가 먼저 청하면 한다.
- 여성간에는 기혼자가 미혼자에게 먼저 청한다.
- 장갑은 남성은 벗고 여성은 그대로 한다.

6. 작별할 때

- 윗어른께 절을 하고 작별한다.

- 용건과 호의에 감사한다.
- 현관 밖이나 대문까지 전송한다.

7. 승차할 때

- 줄지어 질서있는 승차를 한다.
- 어른과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미덕을 갖는다.
- 차내에서는 담배와 음주를 하지 않는다.
- 큰 소리의 대화와 노래를 하지 않는다.
- 휴지와 오물을 차내에 버리지 않는다.
- 운전기사와 대화나 잡담을 하지 않는다.
- 자가용 승용차를 탈 때에 자기와 연령이나 지위가 같거나 윗사람이 운전할 때는 운전석 옆에 앉는다.
- 승용차(5인용)는 운전석 뒷자리 오른쪽(운전석 대각선)이 상석이고, 좌차와 봉고차는 운전석 옆자리가 상석이다.

8. 보행할 때

- 윗어른과 동행시는 어른의 왼편 뒤에 간다.
- 윗어른과 동행시는 도로의 차도편으로 간다.
- 남녀(男女)간에 보행할때는 남자가 차도편에 간다.
- 두사람이상 걸을 때는 횡대로 줄지어 가지 않는다.

- 껌이나 음식을 먹으며 걷지 않는다.
- 주머니에 손을 넣고 어깨를 움추리고 걷지 않는다.
- 높은 소리나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걷지 않는다.
- 좌(左)측 통행을 지킨다.
- 신호등과 건널목을 꼭 지키도록 생활화한다.

9. 앉는 자세

- 어른 앞에서는 방석을 깔지 않으나 권하면 앉는다.
- 앉을 때는 어른보다 먼저 앉아서 안된다.
- 앉을 때는 예절바르게 무릎, 손, 머리 등을 잘한다.
- 의자에 앉을 때는 깊이 앉고 다리를 의자 안으로 굽혀넣지 않는다.
- 여자는 특히 두 무릎을 붙이고 두 발을 가지런히 한다.
- 앉아 있을 때 어른이 오시면 일어나서 다시 앉는다.

10. 서 있는 자세

- 발의 모습은 남자는 발끝을 적당히 벌리고 뒤꿈치는 붙이며 여자는 두 발끝을 붙인다.
- 무릎, 허리를 자연스럽게 반듯하게 한다.
- 두 손은 자연스럽게 양옆으로 내리고 손가락은 모아 붙인

다.

- 어른앞이나 의식행사에서는 손을 앞으로 모아 공수한다.
- 두 어깨는 수평으로 하고 앞으로 움츠리거나 뒤로 젖히지 않는다.
- 손은 뒷짐을 지지 않는다.
- 기대거나 몸을 꼬지 않는다.
- 시선은 곱게 떠서 시선의 초점을 자기 키의 3배정도 전면에 둔다.

11. 옷 차림

- 철에 맞는 옷을 입는다.
- 몸이 많이 노출되는 옷은 피한다.
- 영어문자나 흉한 그림의 옷은 피한다.
- 너무 화려한 옷, 추한 옷은 피한다.
- 잠옷이나 속옷만으로 문밖에 나가지 않는다.
- 조문이나 병 문안시에는 예절에 맞게 옷을 입는다.

12. 직장인의 예절

- 옷과 머리는 단정히 하고 평범히 한다.
- 너무 짙은 화장이나 노출을 삼가한다.

- 상사에 공경하고 겸손하여야 한다.
- 근무중 잡담이나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
- 가급적 출근은 상사보다 먼저하고 퇴근은 늦게 한다.

13. 집회시의 예절

- 시간을 엄수하고 복장을 단정히 한다.
- 회의중에는 사담을 삼가하고 진지하게 회의를 진행한다.
- 남의 말과 인격을 존중하고 결의에 따라 승복한다.
- 발언은 요령있게 간단하게 하며 독점하여 발언을 하지 않는다.

14. 그외의 예절

- 문을 열 때는 노크를 하고 문 소리를 내지 말고 살며시 두손으로 열고 닫으며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
- 어른 앞에 문을 열고 나갈 때는 뒷걸음으로 비스듬히 뒷모습이 드러나지 않게 나간다.
- 남녀간에 만날때는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고 방에서 만날때는 문을 열어 놓고 대화한다.
- 계단을 오를 때는 남자가 먼저 올라가며 내려올때는 여자가 먼저 내려간다.

- 어른께 물건을 주고 받을 때는 두손으로 드려야 한다.
- 어른께 주전자에 술이나 물을 따를때는 두손으로 하고 누구에게나 왼손으로 사용하여 따르지 않는다.
- 물건을 주고 받을 때는 앉은 사람에게는 앉아서 주고 선 사람은 서서주며 어른께는 두손으로 꼭 드리고 받는다.
- 더불어 함께사는 사회이니, 라디오, 텔레비전 등을 너무 크게 소리를 내지말고 밤이나 거리에서 고성방가를 하지 않는다.
- 부부간에는 서로 존중하고 공경하며 존대말을 써야 한다.
- 조문할때는 호화롭고 노출이 심한 옷이나 지나친 화장과 패물을 삼가하고 상주에게 농담이나 방탕한 웃음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제 三 장 傳統 禮節(전통 예절)

유구한 역사와 문화민족임을 자랑할 수 있는 전통예절은 우리 문화의 뿌리요 조상의 얼이 담긴 고귀하고 독특한 예절이다. 관, 혼, 상, 제로부터 의복과 인사하는 법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절을 말함이니 우리는 이를 전승하여 문화민족으로써 긍지를 갖자.

1. 공수(拱手)하는 예절

의식 행사나 어른께 공경을 표현할 때 공손한 자세로 두손을 맞잡는 방법을 공수라고 한다.

• 공수하는 방법

양손을 엄지와 둘째 손가락 사이에 서로 엄지손가락을 上, 下를 끼어 손을 잡아 가슴 명치끝 아래에 공손히 손을 붙인다.

① 남자의 평상시 공수는 왼손이 위이다.

- ② 남자의 흥사시 공수는 오른손이 위이다.(초상집)
- ③ 여자의 평상시 공수는 오른손이 위이다.
- ④ 여자의 흥사시 공수는 왼손이 위이다.(초상집)
- ⑤ 공수시의 엄지 손가락은 엇갈려 깎지킨다.
- ⑥ 도포, 활옷과 같이 소매가 넓은 예복을 입었을 때는 공수한 손이 수평이 되게 올린다.
- ⑦ 평상복을 입었을 때는 공수한 손이 명치 밑 배꼽위에 둔다.

2. 절하는 예절

절이란 최대의 공경을 뜻하는 의식으로서 남자(男子)와 여자(女子)의 절법이 다르며 큰절, 평절, 반절로 구별하고 가문과 지역별로 절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으나 통일하여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ㄱ. 절하는 분별요령

- 상대자가 정좌한 후 행(行)한다.
- 앞은거리 정도 떨어진 거리를 두고 행한다.
- 밖이나 노상에서는 약식인사를 한다.
- 병석이나 누워 있을 때는 절을 생략한다.

- 식사중에는 마친후 절을 한다.
- 어른들께 모두 각각 절을 드린다.
- 할아버지 할머니 이외는 부모님께 먼저한다.
- ※ 부모님은 식사중이나 정좌치 않으시더라도 절을 드린다.

ㄴ. 남자의 큰절

- ① 공수하고 정중히 선다.
 - ② 공수한 손을 그대로 땅에 짚는다.
 - ③ 좌(左)측 무릎을 먼저 굽힌다.
 - ④ 우(右)측 무릎을 나란히 모아 굽힌다.
 - ⑤ 머리를 구부려 이마를 손등에 닿게 한다.
 - ⑥ 엉덩이를 발뒤꿈치에 닿도록 굽힌다.
 - ⑦ 공수한 손을 그대로 떼어 가슴에 댄다.
 - ⑧ 우(右)측 무릎을 먼저 일으킨다.
 - ⑨ 좌(左)측 무릎을 일으켜 좌(左), 우(右) 함께 붙인다.
 - ⑩ 공수한 손을 올려 읍(揖)을 한다.
 - ⑪ 한걸음 뒤로 물러선 후 정중히 앉는다.
- ※ 혼례, 회갑, 제례 등에는 읍(揖)하고 절하며 기타는 하지 않는다.

ㄷ. 여자의 큰절

※ 여자의 큰절은 제사 혼인 부모회갑 등에 4배를 한다.

- ① 공수한 손을 어깨높이로 올린다.
- ② 고개를 숙여 이마를 손등에 댄다.
- ③ 왼무릎을 먼저 꿇는다.
- ④ 오른무릎을 왼무릎과 가지런히 꿇는다.
- ⑤ 오른발을 아래로 포개고 뒤통치를 벌리며 깊이 앉는다.
- ⑥ 상체를 반(45°)쯤 앞으로 굽힌다.
- ⑦ 상체를 일으킨다.
- ⑧ 오른무릎을 먼저 일으킨다.
- ⑨ 일어나서 두 발을 모은다.
- ⑩ 수평으로 올렸던 공수한 손을 내린다.

ㄹ. 여자의 평절

※ 여자의 평절

- ① 공수한 손을 풀어 손을 양옆으로 내려뜨린다.
- ② 왼무릎을 먼저 꿇는다.
- ③ 오른무릎을 왼무릎과 가지런히 꿇는다.
- ④ 오른발을 아래로 포개고 뒤통치를 벌리고 깊이 앉는다.
- ⑤ 손가락을 가지런히 모아 끝이 밖을 향하게 무릎과 가

지런히 바닥에 댄다.

- ⑥ 상체를 반(45°)쯤 굽히며 손바닥을 바닥에 댄다.
- ⑦ 상체를 일으키며 손바닥을 바닥에서 떼다.
- ⑧ 오른무릎을 세우며 손끝을 바닥에서 떼다.
- ⑨ 일어나서 두 발을 모은다.
- ⑩ 공수한다.
- ⑪ 한걸음 뒤로 물러선 후 정중히 앉는다.

3. 한복의 바른예절

바른 옷차림에서 공경하고 경건한 마음과 예절이 생기는 것이며 그 사람의 품성과 인격이 담겨져 있는 것이니 단정하고 바른 옷차림으로 전통문화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ㄱ. 남자의 한복

- 바지 저고리 조끼와 마고자를 입고 가정에서는 생활한다.
- 외출할 때는 마고자 차림만 하지말고 두루마기를 꼭 입어야 한다.
- 회갑, 제사 등 큰 의식에는 두루마기 위에 도포를 입고

띠를 매고 행전을 치고 유건이나 갓을 쓰기도 한다.

ㄴ. 여자의 한복

- 속바지 속치마 치마저고리에 버선을 신는 것이 정장이다.
- 두루마기는 정장에 들지 않으며 외출할 때 입는다.
- 의식행사나 실내에서는 두루마기를 입지 않는다.
- 신은 버선에 고무신을 신는다.

ㄷ. 저고리 고름매는 순서

- ① 오른쪽 고름을 왼손으로 잡고 왼쪽고름을 오른손으로 잡은 다음 왼손을 위로 가게 한다.
- ② 왼손으로 잡고 있는 고름을 다른쪽 고름 밑으로 집어 넣는다.
- ③ 위로 잡아 뺀다.
- ④ 위로 나온 고름의 안쪽에 왼손을 댄다.
- ⑤ 한바퀴 돌려 동그란 구멍을 만든다.
- ⑥ 밑으로 늘어져 있는 다른쪽 고름의 동그라미 속으로 밀어 넣어 왼손에 쥐어준다.
- ⑦ 왼손으로 쥐어진 고름을 잡아 당겨 적당한 크기의 고

름을 만든다.

- ⑧ 끝자락 두개를 가지런히 밑으로 늘어 뜨린다.

ㄹ. 바지대님 매는 순서

- ① 한복바지의 세군데 솔기중 한가운데 솔기를 발목 안쪽에 고정시킨다.
- ② 바지 끝자락을 발목에 갖다 대고 뒷자락을 뒤로 잡아당긴다.
- ③ 잡아당긴 자락을 안쪽에서 바깥으로 발목을 휘감아 붙인다.
- ④ 대님을 맨다.
- ⑤ 보기 좋게 매만진다.

제 四 장 계 촌 법

- 핏줄이 같은 사람을 親族이라 한다.
- 姑母宅과 外家를 外戚, 內戚이라 한다.
- 같은 할아버지 자손으로 族譜를 같이 할 수 있는 사이가 “一家”(일가)이다.
- 始祖는 같으나 촌수계산이 되지 않아 族譜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끼리 “宗氏”라 한다.
- 始祖는 같으나 三十代이상되는 먼 일가를 宗親이라 한다.
- 高祖가 같은 八寸이내의 자손을 堂內間 또는 집안간이라 한다.

1. 촌수 계산법

- ㄱ. 아버지와 아들은 1寸이다.
- ㄴ. 1寸과 1寸끼리는 2寸이다.(형제간)
- ㄷ. 너와 나사이 같은 할아버지를 찾아 2로 곱하면 寸수가 계산된다.

예) 너나 高祖 즉 4代祖자손이면

$4 \times 2 = 8$ ~ 팔촌간이다.

예) 너 20代祖 나 20代祖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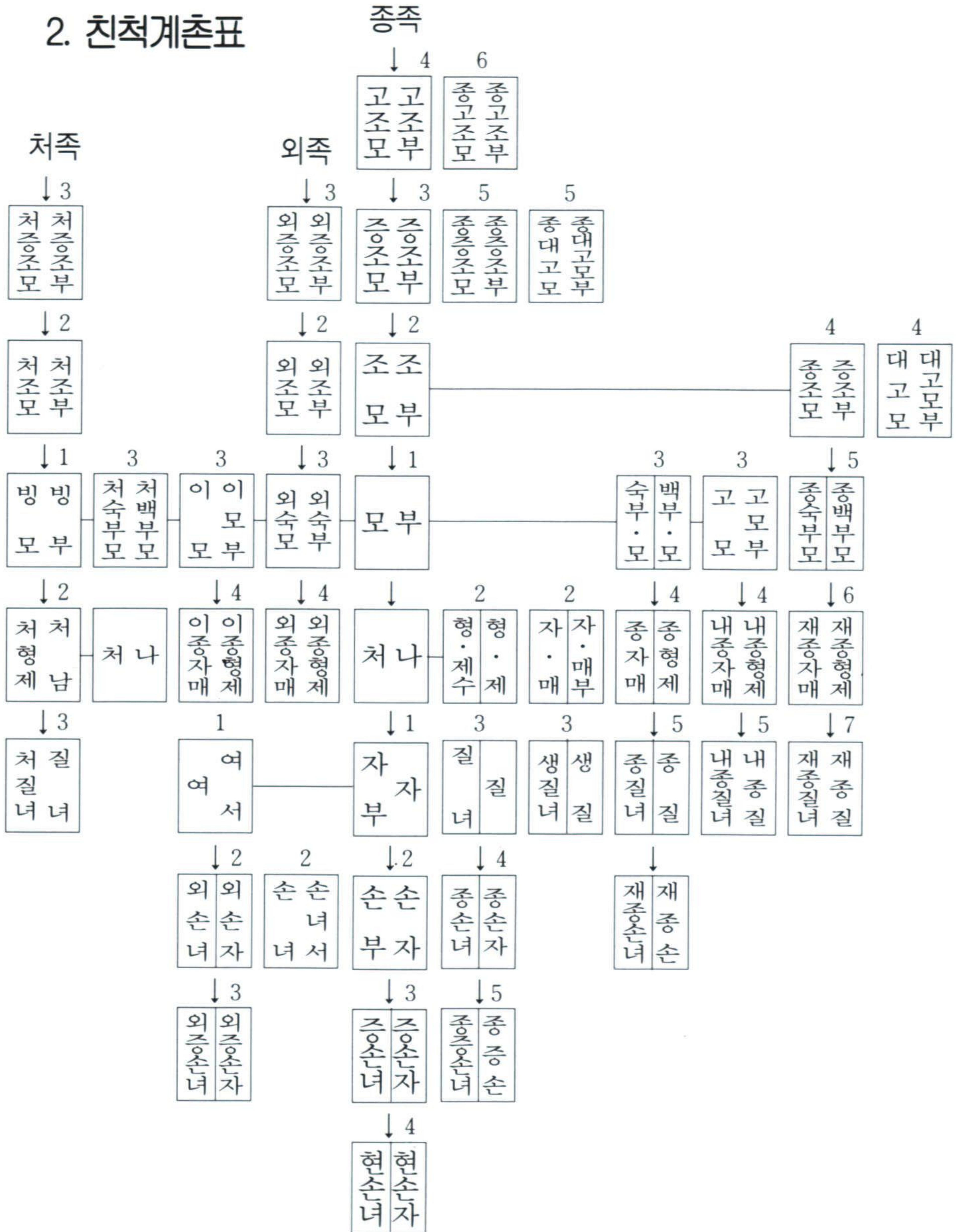
$20 \times 2 = 40$ ~ 즉 사십촌이다.

예) 너 17代祖 나 16代祖면

$17 \times 2 - 1 = 33$ ~ 즉 삼십삼촌간이다.

ㄹ. 夫婦는 寸數가 없는 無寸이다.

2. 친척계촌표



제 五 장 지방 쓰는 법

※ 正體는 정결한 밤나무를 깎아 神主를 모시는 법이나 약식으로 紙榜을 써서 대용함이다.

흰백지 가로 三寸, 세로 七寸의 길이로 마련하여 붓으로 정자로 정결하게 내려쓰는 것이다.

- 故人이 官職이 있으면 學生代身에 官職을 쓴다.

| 백伯 부父 | 백伯 모母 | 考 고 | 妣 비 | 조祖 고考 | 조祖 비妣 | 증曾 조祖 고考 | 증曾 조祖 비妣 | 고高 조祖 고考 | 고高 조祖 비妣 |
|---------------------|---------------------------|----------------|----------------------|---------------------|---------------------------|--------------------------|--------------------------------|--------------------------|--------------------------------|
| 顯伯 父 學生 府君 | 顯伯 母 孺人 ○○ 鄭氏 | 顯考 學生 府君 | 顯妣 孺人 ○○ 尹氏 | 顯祖 考 學生 府君 | 顯祖 妣 孺人 ○○ 朴氏 | 顯曾 祖 考 學生 府君 | 顯曾 祖 妣 孺人 ○○ 金氏 | 顯高 祖 考 學生 府君 | 顯高 祖 妣 孺人 ○○ 李氏 |
| 神位 | 神位 | 神位 | 神位 | 神位 | 神位 | 神位 | 神位 | 神位 | 神位 |

| 子 婦 (부자) | 子 (자) | 弟 (제) | 妻 (처) | 夫 (부) | 兄 (형) | 兄 媳 (형수) |
|---|----------------------------|----------------------------|--------------------------------------|----------------------------|----------------------------|---|
| 亡 子 婦 孺 人 ○ ○ 李 氏 | 亡 子 秀 才 이 름 | 亡 弟 學 生 이 름 | 故 室 孺 人 ○ ○ 韓 氏 | 顯 辟 學 生 府 君 | 顯 兄 學 生 府 君 | 顯 兄 媳 孺 人 ○ ○ 柳 氏 |
| 之 靈 | 之 靈 | 神 位 | 神 位 | 神 位 | 神 位 | 神 位 |

※ 神位와 君, 氏와의 사이를 1글자 간격으로 떼어쓴다.

제 六 장 수 의 서 식

수의를예절이란 각종의식에 인사와 부조물품을 보낼때 정중하게 축하와 위로를 하는 예절이니 봉투에 금전만 넣어 보내지 말고 아래의 예와 같이 단지를 간단히 써서 함께 보내면 바른 인사가 될 것이다.

봉투에도 붓으로 가급적 쓰는 것이 좋으며 싸인펜글씨나 인쇄나 도장으로 찍어 보내면 정성이 담기지 못함이 될 것이다.

1. 봉투쓰는 서식

| 애경사별 | 문問 병病 | 송送 별別 | 세歲末 말新正 | 대大제祭 소小 상祥사祀 | 상喪 가家 | 회回 갑甲 | 혼婚 인姻 | |
|------------|-------------------------|-------------------------|------------------|--------------------------------|--------------------------|--|--|---|
| 봉투에 쓰는 축하문 | 미微誠 쾌快癒 박薄儀 寸志 | 석惜別 잔殘의 신燼儀 의의 | 세歲儀 절節의 의義 | 향香燭代 전尊 향香 전尊儀 박薄儀 | 전尊儀 부膊儀 조弔儀 저楮儀 | 축祝壽宴 수筵 경慶儀 축祝壽筵 수筵 하賀儀 | 축祝盛婚 성盛 축祝華燭 화燭 축祝의 의儀 | 축祝婚禮 혼禮 축祝華婚 화婚 축祝의 의儀 근謹 의儀 |
| 자아래이름 | 근謹 呈呈 | 근謹 送送 | 근謹 呈呈 | 근謹 拜拜 근謹 上上 | 배拜上 근謹 弔弔 | 恭賀 公公 하하 謹祝 근謹 축축 謹呈 근謹 정정 | 謹祝 근謹 축축 謹下 근謹 하하 謹上 근謹 상상 謹呈 근謹 상상 | |

2. 각종 행사 축하용어

| | | | | | | | | | |
|----|----|----|----|----|----|----|----|------|------|
| 祝 | 祝 | 祝 | 祝 | 祝 | 祝 | 祝 | 祝 | 謹 | 謹 |
| 落成 | 開業 | 發展 | 榮轉 | 當選 | 合格 | 卒業 | 入學 | 慰勞 | 慰災難 |
| 축 | 축 | 축 | 축 | 축 | 축 | 축 | 축 | 근위공로 | 근위재난 |
| 낙성 | 개업 | 발전 | 영전 | 당선 | 합격 | 졸업 | 입학 | | |

3. 單子(단자)쓰는 서식

祝 壽 宴

一金 ○○○○원

○년 ○월 ○일

○○○ 謹賀

○ 先生任께

삼가 수연을 축하드립니다

(一金 ○○○○원)

○년 ○월 ○일

○○○근축

제 七 장 단 어 해 설

- 本 貫(본관) : 자기 姓氏의 고향을 稱하는 것이니 〇〇金氏, 〇〇李氏 등이다.
- 貫 鄉(관향) : 본관과 同一한 뜻이다.
- 名(명) : 사람의 이름자이다.
- 字(자) : 사람이 長城하면 윗어른도 이름을 중히 여겨 부르지 않고 字를 지어 이름대신 사용한다.
- 號(호) : 이름대신 부르는 명칭이니 上, 下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칭호이다.
- 諡 號(시호) : 공신에게 死後에 내리는 명칭
- 諱(휘) : 死亡한 者의 이름을 높혀 부르는 말이니 高祖의 諱자는 〇〇이다라고 사용함.
- 銜, 啣(함) : 생존자 이름을 높혀 부르는 말이니 아버지 啣字는 〇〇입니다 등으로 사용함.
- 氏(씨) : 他人을 높여 이름아래에 붙여 사용하는 것으로써 自己 一家사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任(님) : 氏와 사용이 同一하다.

- 春府丈(춘부장) : 椿은 참가죽나무이니 八千歲를 사는 壽木이라 他人의 아버지를 높여 칭하는 말이니 자기 아버지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萱 堂(훤당) : 萱은 난초과의 원추라는 풀의 名인데 이 풀을 복용하면 근심이 잊어진다하여 他人의 어머니를 높여 부르는 칭호이다.
- 雁 行(안행) : 기러기가 홀로 다니지 않고 짝지어 날아다닌다는 뜻으로 他人의 兄弟間을 이르는 칭호다.
- 承 重(승중) : 아버지가 死亡하신 후 祖父母喪事에 長孫이 父를 代身하는 體다(承重孫)
- 內艱喪(내간상) : 母喪이나 父沒에 祖母喪事
- 外艱喪(외간상) : 父喪이나 父沒에 祖父喪事
- 斬 衰(참취) : 外艱喪에 喪服을 만드는데 아래단을 꿰매지 않음을 칭함.
- 齊 衰(재취) : 內艱喪에 喪服을 아래단을 함을 칭함.
- 生 辰(생신) : 부모, 형, 尊丈의 生日을 칭할 때
- 誕 辰(탄신) : 聖人, 國祖檀君의 生日을 칭할 때
- 入 祭(입제) : 祭祀 前日 즉 제사가 드는 날
- 罷 祭(과제) : 제사가 끝나는 날이니 즉 사망한 날
- 祭 祀(제사) : 先祖들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뜻에서

祭需를 차리고 行하는 儀式 忌祭祀, 歲一祀 등이 있는데 祝文을 읽고 三獻酌로 지낸다.

- 茶 祀(차사) : 茶禮 또는 차례라고도 하는데 설, 秋夕, 寒食, 三辰, 端午, 流頭, 冬至 등 名節에 祝文없이 單酌으로 지낸다.

陰曆으로 설(一月 一日), 추석(八月 十五日), 삼진(三月 三日), 단오(五月, 五日), 유두(六月 十五日)

- 外 家(외가) : 어머니의 親庭
- 陣外家(진외가) : 아버지의 외가
- 外外家(외외가) : 어머니의 외가

예절과 의례 (비매품)

발행 : 2000. 9. 5.

인쇄 : 2000. 9. 5.

발행처 : 청양문화원 T. 943-4774
T. 942-8889

발행인 : 안 종 일

인쇄처 : 장천인쇄사 T. 943-2077

이 책은 국·군비의 지원으로 발간되었음.

